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세계 채권 갑자기 랠리..성장·물가 정점 통과 판단 확산
 - ◇ (초점)-코로나 재확산 보는 두 시각: 8월 인상 기대 들린 트리거 vs 2주 재료
 - ◇ (초점)-당국,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만지작'..배경과 전망
 - ◇ (초점)-역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달러/원 1150 원대는 변곡점"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재유행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19로 사망한 환자 가족이 시신 매장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윌리 쿠르니아완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7월9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49.1	-1.2%	-5.5%	+6.5%	유로	1.1873	0.1%	-2.8%	+8.9%
100엔 대비	1,038.2	-2.0%	1.3%	+1.1%	엔	110.14	0.8%	-6.2%	+5.2%
유로 대비	1,358.0	-1.3%	-2.3%	-2.3%	위안	6.4910	-0.3%	0.6%	+6.7%
위안 대비	176.53	-1.1%	-5.8%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870.16	0.2%	13.9%	+7.2%
코스피	3,217.95	-1.9%	12.0%	+30.8%	나스닥	14,701.92	0.4%	14.1%	+43.6%
코스닥	1,028.93	-0.9%	6.2%	+44.6%	S&P500	4,369.55	0.4%	16.3%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74.03	-2.4%	1.8%	+19.8%
국고채 3Y	1.375%	-10.9bp	39.9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684%	-9.7bp	34.9bp	-14.5bp	미국채 2Y	0.215%	-2.3bp	9.4bp	-144.0bp
국고채 10Y	2.033%	-6.8bp	32.0bp	+3.0bp	미국채 10Y	1.361%	-6.9bp	44.9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74.56	-0.8%	53.7%	-20.5%	한국 5Y	18.2bp	0.2bp	-3.8bp	+0.1bp
금(현물)	1,807.98	1.2%	-4.7%	+25.0%	일본 5Y	16.7bp	0.1bp	1.7bp	-4.5bp
TR상품지수	2,819.69	-3.6%	5.2%	+7.8%	중국 5Y	38.2bp	2.2bp	10.1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7월 12일(월)>

- 금감원,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관세청, 7월 1-10일 수출입 동향
-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분기 동향 및 3분기 전망)(12:00)

<13일(화)>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기재부, 부총리·2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10:00)
- 한은, 5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14일(수)>

- 통계청, 6월 고용동향(08:0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8:30)
- 금감원,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
- 한은, 6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한은, 6월중 금융시장 동향 ·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15일(목)>

- 기재부, 부총리·2차관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10:00)
- 한은,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및 총재 기자회견

<16일(금)>

- 기재부, 부총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10:00)
- 기재부, 7월 최근 경제동향(10:00)
- 한은, 6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7월 12일(월)>

- 일본 6월 기업상품 가격지수 (08:50)
- 일본 5월 기계류주문 (08:50)
- 유로그룹 회의

<13일(화)>

- 중국 6월 수출입
- 영란은행, 7월 금융안정 보고서 발행 (15:00)
- 미국 6월 NFIB 기업낙관지수 (19:00)
- 미국 6월 CPI (21:30)

<14일(수)>

- 미국 6월 연방예산 (03:00)
- 일본 7월 로이더단칸 제조 · 서비스업 지수 (08:00)
- 일본 5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5월 산업생산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6월 PPI (21:30)
-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발표 (23:00), 티프 맥클럼 캐나다은행 총재 기자회견
- 프랑스 휴장

<15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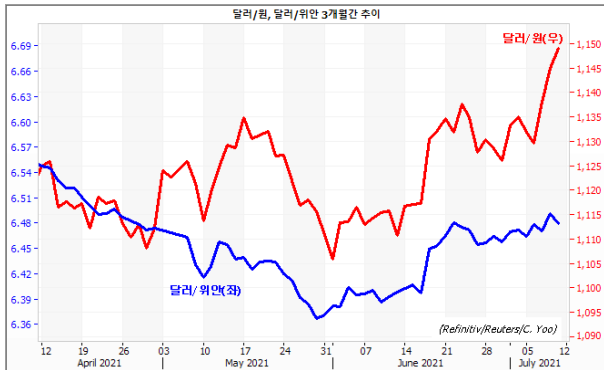
-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 (03:00)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16일)
- 중국 6월 주택가격 (10:30)
- 중국 6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 · 산업생산 · 소매판매 (11:00)
- 중국 2분기 GDP (11:00)
- 미국 7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1:30)
- 미국 6월 수출입 물가 (21:30)
-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7월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1:30)
- 미국 6월 산업생산 (22:15)

<16일(금)>

- 일본은행(BOJ) 금리 결정 발표
- 미국 6월 소매판매 (21:30)
- 미국 5월 기업 · 소매재고 (23:00)
- 미국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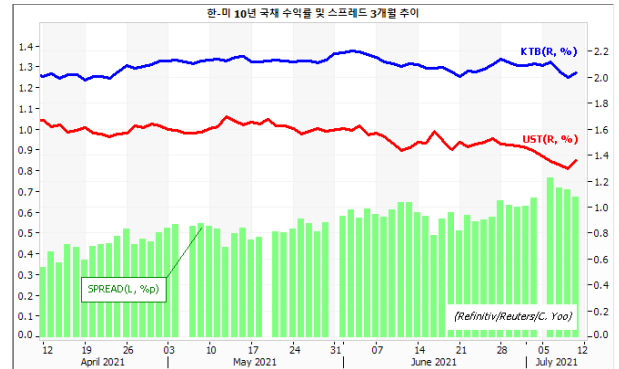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지난주 예상외로 상승압력을 키웠던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예정된 굵직한 국내외 재료 내용에 따라 양방향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 이번 주 예상 환율 범위는 1130-1160 원이다.
- 한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한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 조정 유인은 유효하다.
- 이런 가운데 15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의 결과가 큰 관심이다.
- 최근 코로나 재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한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시장참가자들은 이번 주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출현 여부에 이목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사망률이 급증하지 않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위험 회피 현상이 기존의 세계 경제 회복 테마를 훼손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솔솔 제기된다.
- 아울러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유지되는 한 자산시장의 급격한 조정은 한계가 있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 이번 주에 있을 미국 6월 소비자물가,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중국 6월 수출입 지표,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및 2분기 GDP 등 핵심 지표 결과에 시장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반기 의회 청문회 참석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 국내 주목할 지표로는 10일 기준 수출입 잠정치와 6월 고용 동향 등이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급등락하는 미국 국채금리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코로나 19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늘어났다.
- 15일 금통위 회의에서 두 명 이상의 금리 인상 소수의견과 함께 분명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다.
- 이주열 한은 총재가 8월 금리 인상에 대해 선을 긋느냐가 관건이다.
- 시장은 일단 금통위원들이 한발 물러서 상황을 관망하려 한다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물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 장기물은 두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동향이 중요한 한 주다. 지난 3월 1.78% 수준까지 올랐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주 중반 1.25% 수준까지 급락했다가 주말에 1.37%까지 반등했다.
- 국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그동안 급격히 축소됐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장기물의 상대적 약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13일에는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발표된다. 5월에 5%까지 올랐던 미국 CPI가 기저효과 약화로 둔화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 14일과 15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관련 반기 의회 증언이 예정돼 있다. 테이퍼링과 관련한 파월 의장의 언급에 따라 시장이 위·아래로 출렁일 수 있다.

(분석)-세계 채권 갑자기 랠리..성장·물가 정점 통과 판단 확산

런던, 7월 08일 (로이터) - 지난 24시간 동안 세계 주요국 채권시장 랠리가 시장 참가자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코로나 19 충격으로부터의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 급등 현상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미국 국채 10년물 가격은 최근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왔고, 6일(현지시간) 수익률은 8bp 하락해 올들어 두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7일에는 수익률이 1.3% 아래로 떨어져 4개월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채권시장 랠리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영국 국채 수익률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고, 지난 5월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았던 독일 국채 수익률은 -0.3%까지 밀렸다.

현재 채권시장 랠리의 원인으로는 수익률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숏 스퀴즈,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지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우려 등 다양하게 제시됐다.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이번 국채 가격 랠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크게 하나로 축약할 수 있다. 경제 성장세는 더 확고해졌지만 이미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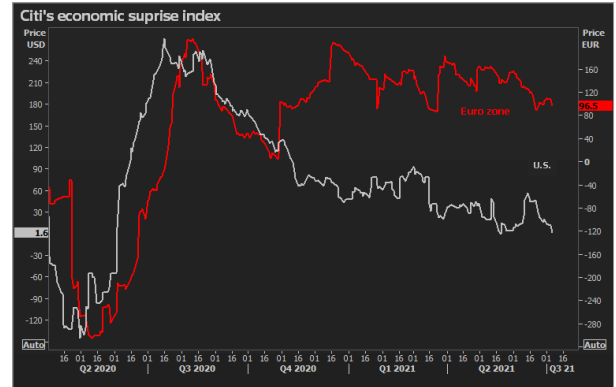
취리히보험그룹의 가이 밀러 수석 시장 전략가는 "시장은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이 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성장세는 정점에 달했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채권시장 내 분위기 전환은 매파적인 스탠스로 기울며 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보내는 메시지와는 다소 결이 달라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것은 연준도 여전히 2023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며, 다른

중앙은행들처럼 단기적 물가 상승은 무시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는 점이다.

픽텍웰스매니지먼트의 프레드릭 듀크로젯 전략가는 "경제 성장이 견실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공개된 자료에서는 6월 미국 서비스업 확장세가 완만한 속도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Full Story) 7월 독일 투자자 심리는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시장 랠리는 경제 회복과 맞물려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 국채에 숏 포지션을 취했던 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겼을 것이고, 이에 따른 포지션 청산으로 수익률이 하락 속도는 더 가팔라졌을 것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는 미국 국채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며, 블랙록은 7일에도 이같은 입장을 유

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익률은 꾸준히 하락해 3월 대비 약 50bp 낮아졌다.

수익률 하락 원인으로는 중앙은행이 도비시한 스탠스를 고수하는 유럽과 일본에서의 수요 증가, 미국 재무부의 현금 잔고 축소 및 연준의 채권 매입에 따른 미국 금융 시스템 내 유동성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꼽힌다.

그러나 견실해 보이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채권시장에서 유지됐던 경제 전망에 대한 의구심 역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현재 수익률 하락은 '실질' 차입금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ING 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설명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실질 수익률은 -0.1%로 2월 이후 최저까지 하락했고 독일 국채 실질 수익률은 3개월 만의 최저를 가리키고 있다.

T.로우 프라이스의 마이크 시웰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리플레이션' 베팅이 축소되면서 올해 미국 국채 10년물 명목 수익률은 3월 기록한 1.77%를 넘어 서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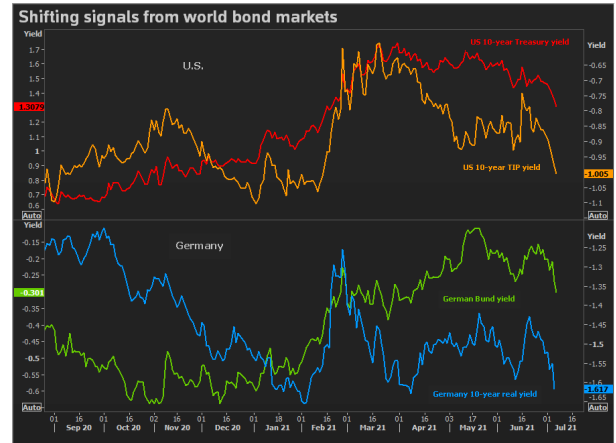
그는 "리플레이션 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3분기나 4분기에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리플레이션 거래가 죽은 것은 아니나 잠잠한 상태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원인도 리플레이션 거래 축소에 기여했을 수 있다.

이번 주 발표된 중국의 서비스업 활동 지표는 14개월 만의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부 애널리스트는 이것을 선진국 경제가 앞으로 보여줄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 우려도 커지고 있다.

메디오라눔인터네셔널펀드의 찰스 디벨 채권 담당 헤드는 "시장은 코로나 19가 확산되면 정부는 봉쇄 조치를 다시 시행할 것이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코로나 재확산 보는 두 시각: 과도한 8월 인상 기대 돌린 트리거 vs 2주 재료

서울, 7월 7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한 주 앞두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채권시장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가파른 경제 회복과 물가 상승 부담,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국내 통화당국이 이르면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후퇴하면서 시장금리가 낙폭을 키우는 상황이다.

다만, 이전 세 번의 대유행 국면을 거치면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금리 영향이 점차 희석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료의 유효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오후 3시 1분 현재 3년 국채 선물은 전날보다 19틱 상승한 110.19, 10년 선물은 82틱 오른 126.47에 거래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 장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락한 여파로 강세 출발한 국내 채권시장은 코로나 19 확산 뉴스와 함께 변동폭을 키우고 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천 200명대까지 치솟은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초입 단계로 규정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내달 초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당장 코로나 19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진 만큼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이달 금통위 회의에서 두 명 이상의 금리 인상 소수의견과 함께 분명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A 증권사 채권 딜러는 "최근까지 경기, 물가 흐름을 보면 금통위가 언제든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코로나 19의 재확산과 함께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커지는 것은 분명히 금통위의 조기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그동안 국내 통화당국의 빠른 정책 정상화를 급하게 반영해 온 만큼 이번에 이를 되돌리려는 시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까지 3년, 10년 국채 선물을 번갈아 매도하며 약세장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이날은 폭풍 매수하는 것도 가격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 5월 금통위 회의 직전 16만계약에 근접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3년 국채 선물 누적 순매수 규모는 현재 3만계약 초반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주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일 1만계약씩 털어내면서 국내 기관들의 손절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번엔 상황이 달라졌다. 시장의 분위기는 돌변했는데 외국인이 매도할 물량은 별로 남아 있지 않아 국내 기관들이 유리해졌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바이러스 때문에 연내 두 번의 금리 인상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인식이 오늘 가격에 반영되는 듯하다"며 "외국인이 그동안 3년 선물을 엄청나게 매도해 왔는데 매도한 손익분기점(BEP)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이번엔 눈치 보다가 가격을 위로 쳐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선물 매도가 불리한데 저평가와 캐리를 합치면 30틱이나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선물 롱 포지션을 들고 있는 쪽에선 가격을 호가보다 멀리 대거나 외국인이 쳐올릴 때 받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2차 대유행 이후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파장의 지속기간이 점차 짧아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시장 참가자도 있다.

한은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코로나 19 확진자 수와 실물 경제지표 간 상관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 있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일회성 자료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향후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질수록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우려가 그만큼 경감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예상보다 경제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C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지금 채권시장은 당장 코로나 19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이걸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백신 접종에 달린 문제인 만큼 결국 거시경제에 별다른 충격 없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짧으면 두 주 정도 이슈가 될 수 있고 길어야 한 달"이라며 "물론 그동안 과도했던 8월 금리 인상 프라이싱을 걷어낼 정도는 되지만 7월 금통위 이후에는 시장 분위기가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초점)-당국,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만지작'..배경과 전망

서울, 7월 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당국은 작년 3월 코로나 19 사태가 국내 외화 유동성 우려를 촉발하자 시장안정 정책 카드로 꺼내 들었던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완화 조치를 머지않아 정상화할 것을 시사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처음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향후 대내외 경제 상황과 시장 외환 수급 여건 따라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완화했던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의 외환 부문 조치들에 대한 정상화 검토 계획을 밝혔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에 대해 자기자본 대비 상한을 설정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외환당국은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은행 선물환포

지선 한도는 40%에서 50%로, 외은 지점은 200%에서 250%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달러/원 환율을 비롯한 외화자금시장 여건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달러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사상 최대인 950억달러에 육박했고, 외화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달러/원 스왑 포인트는 지난 6월부터 전 구간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했다.

한국물 CDS 프리미엄(외평채 5년물 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이후 최저인 17bp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은 풍부하고 한국은행 조기 금리 인상을 반영한 대내외 금리차 확대 등에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국은 외채 증가를 경계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올해 1분기 말 대외채무는 5659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이 가운데 단기외채는 1657억달러, 장기외채는 4002억달러였다.

1분기 말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총외채)은 29.3%로 2010년에서 2019년 동안 분기 평균인 30.8%보다는 낮지만 2분기에도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는 지속된 만큼 외환당국은 단기외채 증가를 챙겨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를 저울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외환당국자는 "외채 문제는 당국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강조하며 "선물환 한도 완화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한시조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과 당국 간에 인식의 갭이 있는 듯하다. 그렇다 보니 선물환 한도 축소를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안내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 영향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전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기관들까지 올해 한국 채권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다 보니 본점 차입 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 재정거래 차익 유인이 생기는 한국 채권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은행별 자본금 규모와 비례하는 만큼 은행별 영향은 상이할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과 예대율이 커 자본금 규모가 큰 외은들은 이같은 한도 조정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자본금 규모가 적은 일부 외은들과 외국계 증권사들의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여부와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위 당국자는 "선물환포지션 축소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만약 하더라도 한도 조정 전 준비기간을 주고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역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달러/원 1150 원대는 변곡점"

서울, 7월 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전 세계 코로나 19 재확산세가 거세지면 달러/원 환율 상승세도 매섭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달러/원 1140원 벽이 예상과 달리 빨리 무너지자 새로운 단기 고점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간밤 역외거래에서 1150원도 넘어선 달러/원 환율은 9일 오전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114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 뭉가 달라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조기 긴축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 모멘텀에 달러/원은 꾸준히 하단을 높여왔다. 팽팽한 수급 구도가 형성됐지만 틈틈이 예상치 않은 달러 수요가 달러/원을 밀어올렸고, 이에 환율은 꾸준히 상승 에너지를 응축해왔다.

이전보다 환율 레벨이 높아진 상황에서 원화는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과 경기 둔화 우려에 직격탄을 맞았고, 달러/원은 기술적인 저항선을 단숨에 뚫어내면서 더욱 약세압력을 키우고 있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원화 약세 요인이 한꺼번에 겹쳤다. 해외 채권 관련 수급 여건 속에서 국내 델타

변이 확산과 글로벌 리스크 오프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약세폭이 한꺼번에 커졌다"고 말했다.

▲ 역외가 움직였다

달러/원 1130 원대 후반부터 1150 원 부근까지 환율을 끌어올린 주체는 단연 역외 투자자들이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데다 최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까지 더해지자 원화에 대한 역외 포지션 조정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316 명으로 하루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고,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 저녁 이후 통행금지에 가까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역외 물량을 주로 처리하는 딜러들은 최근 역외들의 숏 커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리얼 머니들의 헤지 수요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강 달러에 국내 코로나 급증세가 기름을 부은 듯하다"면서 "역외도 일단 숏을 커버하자는 분위기고 리얼 머니 헤지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달러/원 1150 원 레벨은 의미를 가진다. 작년 하반기 달러/원 환율이 급락할 때 리얼 머니들은 1150 원대부터 한국 자산에 대한 환 헤지를 대거 풀면서 달러/원 급락을 촉발한 바 있다.

간밤 역외거래에서 리얼 머니 주도의 달러/원 상승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시장 참가자들은 달러/원 1150 원 상향 돌파 여부와 이후 환율 움직임을 더욱 눈여겨보고 있다.

▲ 갑자기 커진 변동성, 당분간 지속

글로벌 경기 낙관론이 훼손되면서 자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로 급락하는 등 경기 회복 전망에 맞춰 구축된 포지션이 급하게 되감기고 있다.

급한 포지션 조정 이후 시장이 다시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고조되고 있다.

원화도 마찬가지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위안화가 약세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 원화도 이같은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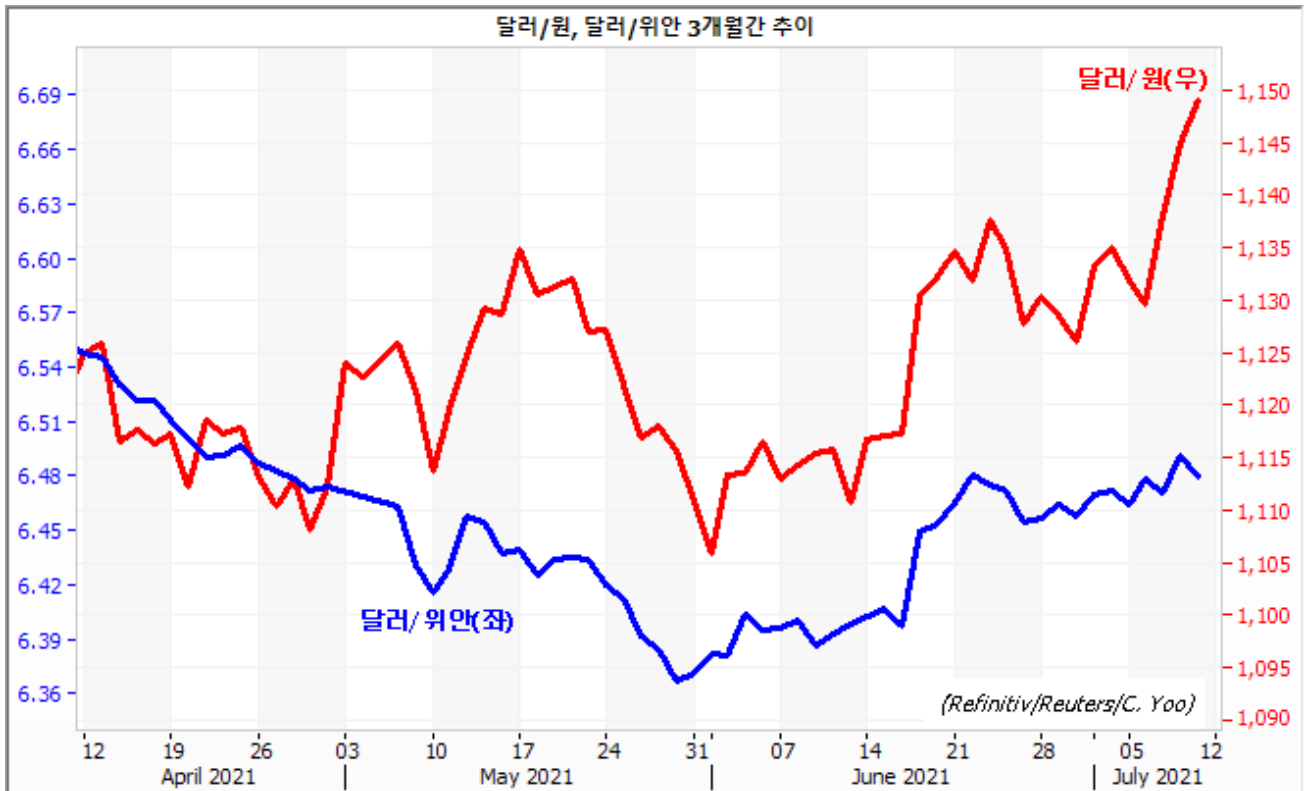
C 은행 외환 딜러는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전에는 지표 부진을 정책 기대 측면에서 좋게 해석해 왔다면 지금은 부진을 있는 그대로 나쁘게 해석하려 하고 있다"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리스크도 반영되고, 역외들도 적극적으로 헤지에 나서고 있어 환율이 쉽게 밀리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달러/원 저항선은 1150 원과 20 개월 이동평균선인 1159.20 원, 그 다음 120 주 이동평균선인 1165.1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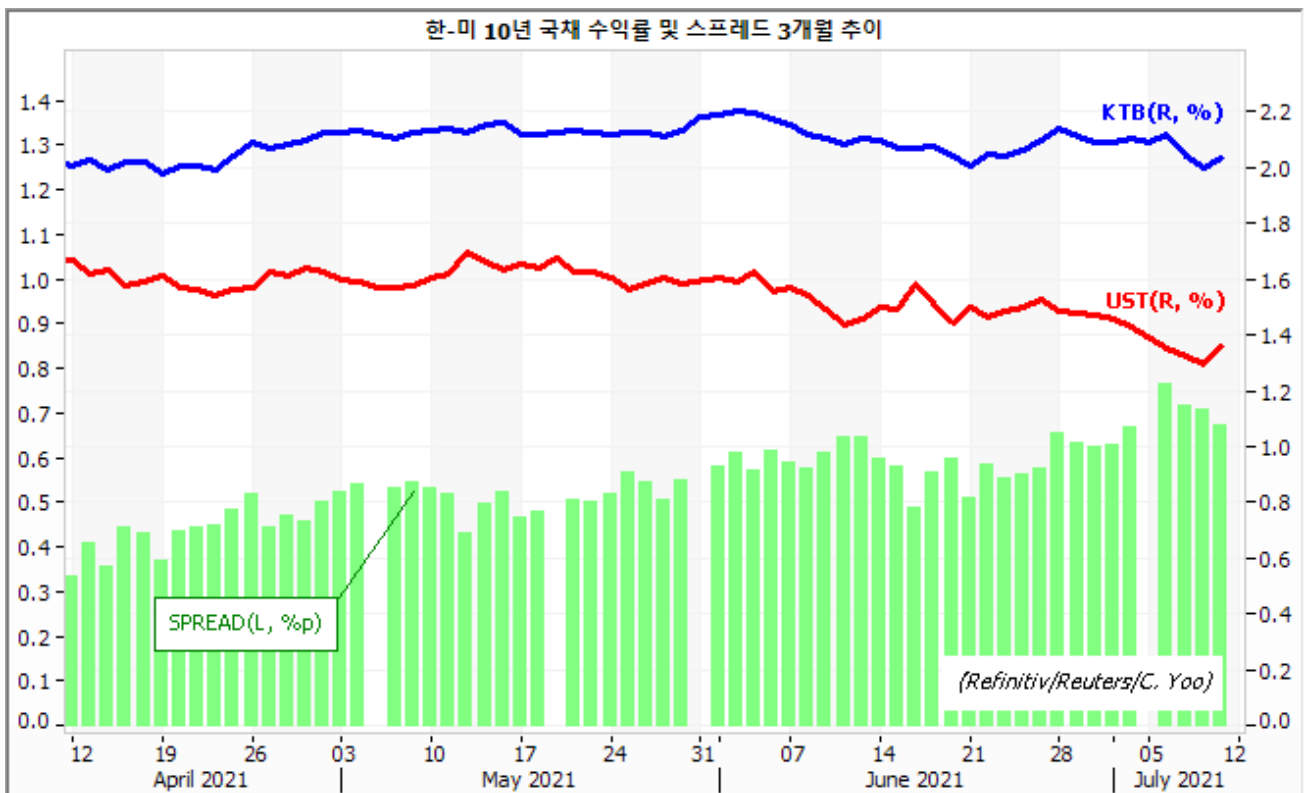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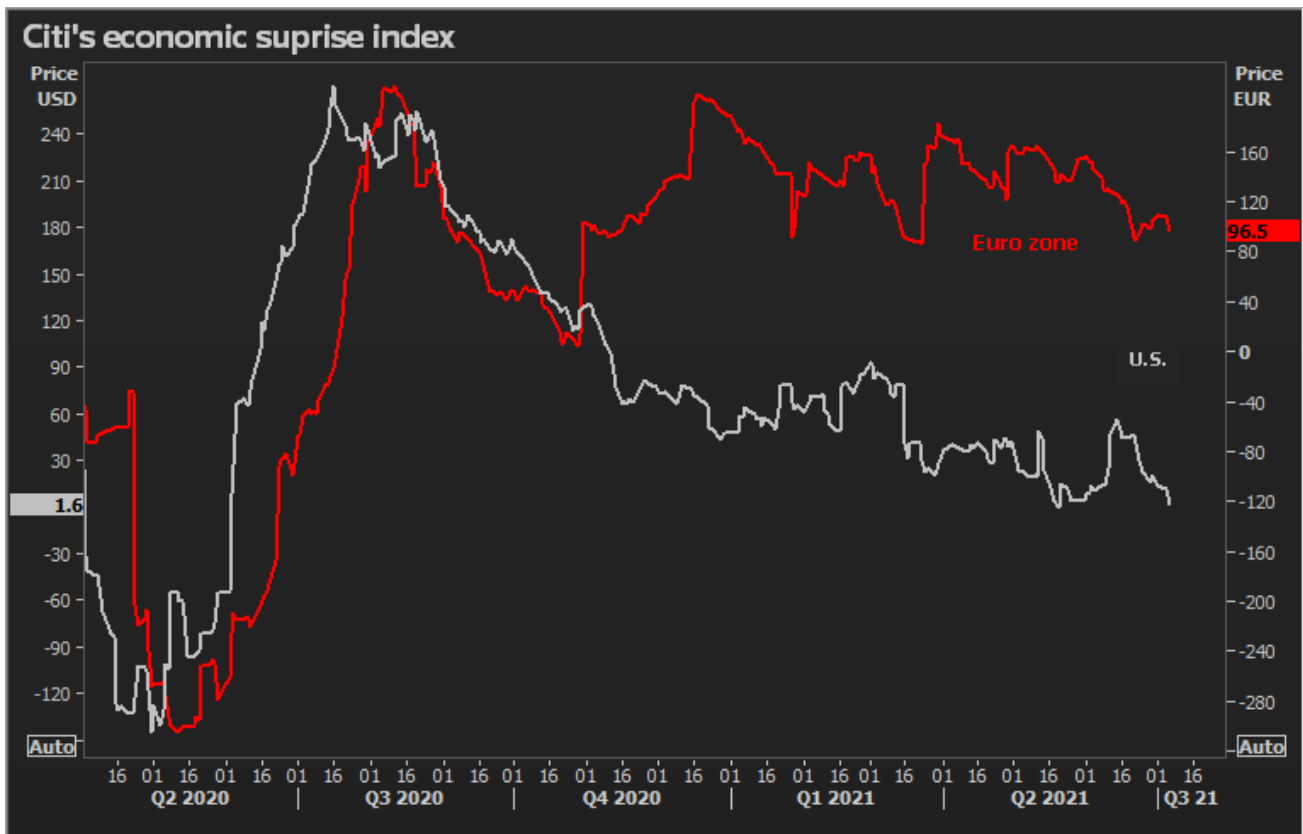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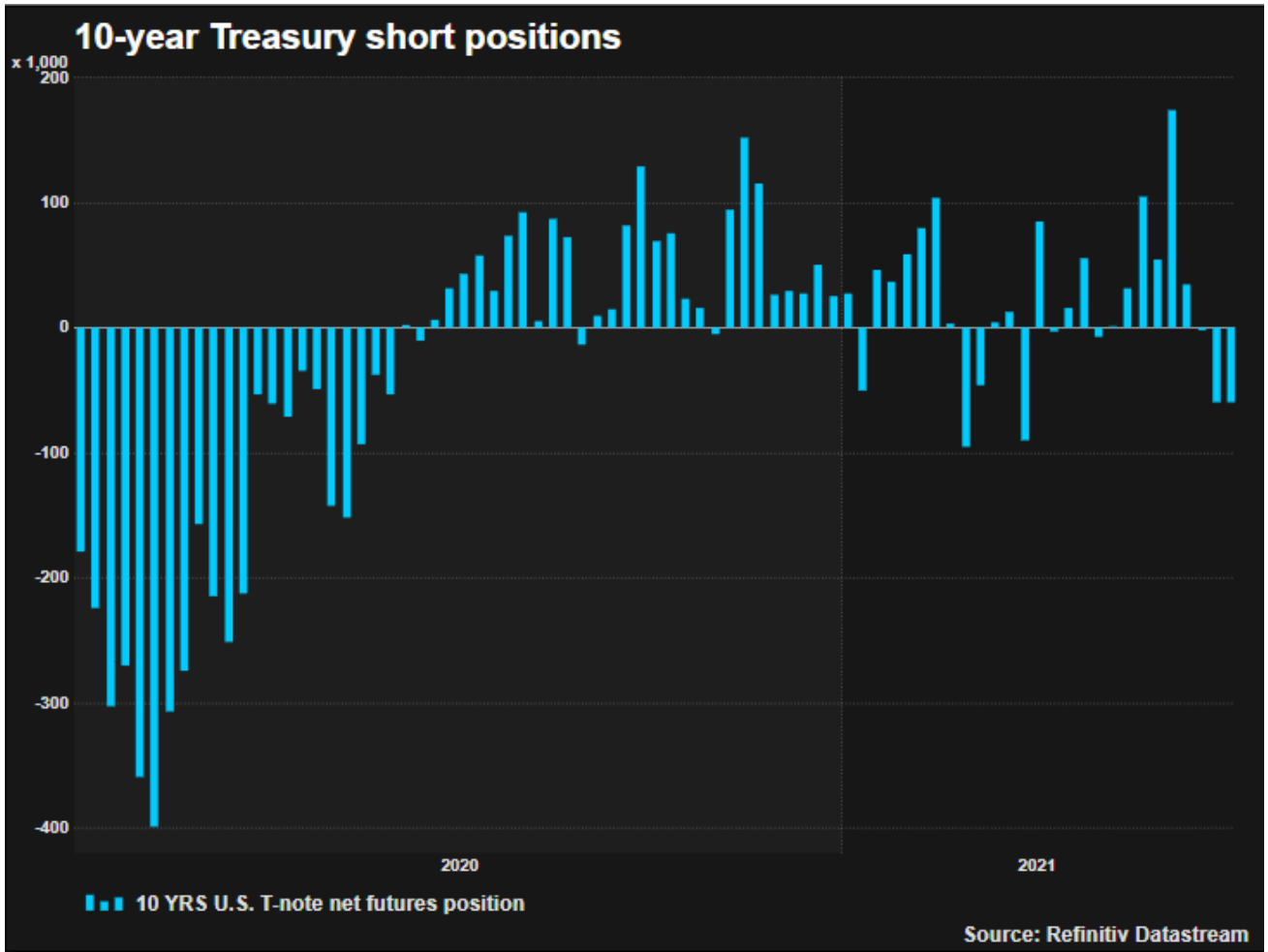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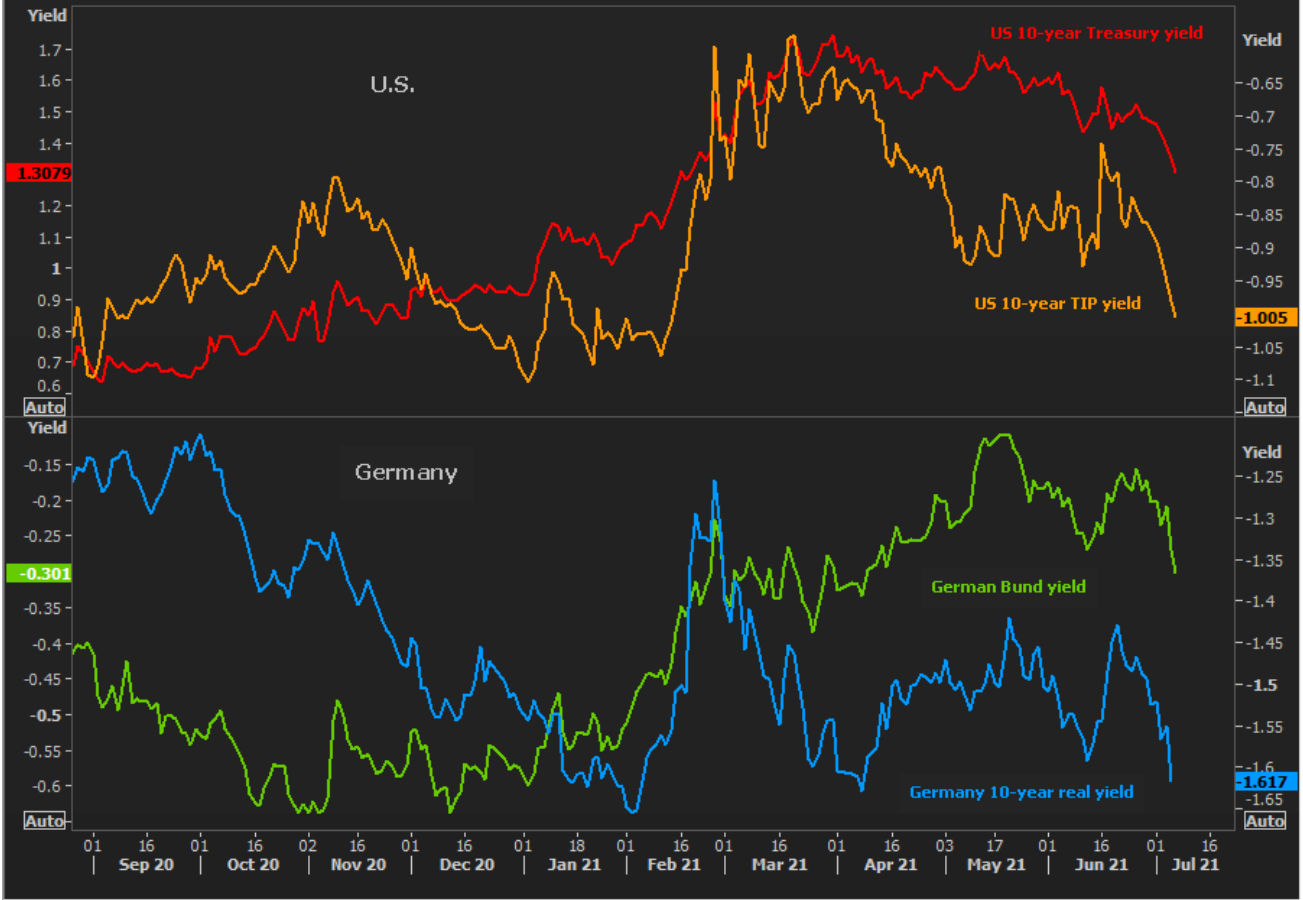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Shifting signals from world bond market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